

<붙임1>

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

2023. 1. 27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추진 배경	1
1. 청년이 바라본 일경험	1
2. 청년 일경험의 현 주소	2
II .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	4
[전략1] 일경험 기회 확대	5
[전략2] 일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	9
[전략3] 일경험 질적 제고	11
III . 과제별 추진 일정	13

I. 추진 배경

1. 청년이 바라본 일경험

- 기업의 수시·경력 채용 확대,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

*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[중기중앙회, '21.4월]: ①**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(73.7%)**, ②구할지원금·생활비지원(59%), ③**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(52.9%)** 順

- 일경험 참여기회 확대와 함께 허드렛일이 아닌 진로 탐색, 직무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경험 프로그램 요구가 커짐



현장의 목소리

- ▶ “수시 채용과 경력직 중심 채용이 많아져 ‘중고신입’이란 말도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취업에 필수적인 직무 경험 및 경력을 개발할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.”
- ▶ “제가 참여한 일경험 프로그램은 사실상 허드렛일 위주의 업무였어요.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습니다.”

- 원하는 일경험 정보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 정보의 통합 제공 요구

* 일경험 관련 애로사항숙명여대, '22.10월): ①**관심은 기업 부족(18.6%)**, ②**일경험 정보 부족(17.8%)** 順



현장의 목소리

- ▶ “제 주변에서는 어디서 직무 경험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. 취업사이트에 있는 인턴은 사실상 정규직 채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선배나 학교, 취업 카페를 통해 알음알음 알아보는게 최선입니다.”

- 일경험 중 직면하는 부당대우·안전 등 애로에 대한 지원 부재, 일경험 후 구직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확인서도 필요



현장의 목소리

- ▶ “첫 인턴 때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업무 말고도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.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. 동기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.”
- ▶ “일경험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, 일경험 이후 취업 준비를 할 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.”

2. 청년 일경험의 현 주소

□ 청년의 일경험 기회 부족

-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적어 일경험 기회 제공 동기가 적고, 일부 ESG 차원에서 참여하나 아직은 규모가 미미
 - * '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'을 통해 대기업의 일경험 공급을 추진하였으나, '22년 일경험 등 프로그램 20개 중 대기업 참여는 5개에 그침
- 중소기업은 인력·재정 등이 부족하여 주도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
 - * 기업 64%, "취지 공감하지만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여건 안된다"(대한상의, '22.3월)

☑ 해외 사례

▲ (스위스) 도제제도 등 일경험에 대해 산업계에서 규정 신설 및 보완 제안 권한 등을 토대로 책임을 지니고 참여하며, 기업이 소요 재정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도적 참여 활발

- 공공기관이 체험형 인턴*을 운영하나, 지방공기업의 인턴 규모는 극히 제한적이며, 단순 행정 보조적 업무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
 - * (내용) 직무체험 기회 부여 및 역량 강화 지원 중점, 가이드라인 및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(비예산)
 - ▲ (중앙공공기관, 기재부 주관) 경평 배점 부여(정규직 정원 7% 만점), '22년 약 1.9만명
 - ▲ (지방공기업, 행안부 주관) 경평 가점 부여(기관 규모별 목표 인원 달성도), '22년 약 5백명
- 또한 부처별로 관련된 산업·분야에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('22년: 19개 사업, 약 1만명)
- 한편 민간기업의 일경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인건비 성격이 강해 직무탐색, 직무역량 강화보다는 단기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사례 다수

□ 직무탐색 · 직무역량 강화 지원 미흡

- 일부 민간기업은 채용 과정의 일환으로서 (채용형)인턴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탐색, 직무역량 개발보다는 역량 검증 수단으로 활용
- 실제 도움이 되는 일경험 없이 취업한 청년의 경우 재직 중 직무 적성이 맞지 않아 조기 이직하는 사례도 빈번
 - * 신규입사자 대비 1년 이내 퇴사자 비율[사람인, '21월]: 28%
퇴사 사유(중복응답): ①직무가 적성에 안맞음(48%), ②조직 문화 불만족(31.1%) 順

- 사전 직무교육, 명확한 과업 부여, 전담 인력 지정 등에 대한 매뉴얼, 컨설팅, 모니터링 등 관리·지원 체계 부재로 질적 측면에서도 한계

☑ 해외 사례

- ▲ (미국) 정부기관(Office of Apprenticeship)에서 견습 프로그램의 관리를 총괄하며 운영비용 지원, 품질 관리 등 담당. 특히 직무·과업, 이수기준, 교육 등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하여 기업·단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평가 및 인정

□ 참여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·지원 부족

- 참여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(소위 ‘열정페이’), 안전 문제 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현장 지도·점검 등 노력하였으나,
 - * 「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」(고용부, '16.1월)
-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이슈 제기 시에만 관심이 집중되고, 법·제도적 기반을 토대로한 지속적인 보호·지원은 미흡

□ 통합 지원·관리체계 미비

- 민간·공공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이 제공되나 정보가 분산되어 청년의 일경험 정보 접근 및 참여에 큰 제약
- 민·관을 아울러 일경험 제공 주체를 발굴·지원하고, 참여 청년을 보호·지원할 통합거버넌스 부재

☑ 해외 사례

- ▲ (네덜란드) S-BB(공공기관)에서 전문대학 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, 인턴을 제공하는 기관 발굴·인증·품질관리(모니터링) 등 총괄하며, 공식 사이트를 통해 기업,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정보 통합 제공

- ❖ 일경험의 범주를 채용과정으로서의 인턴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 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청년이 취·창업 전에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한정하고
- ❖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합 거버넌스 등 기반 마련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

II.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

비전

“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”

목표

**청년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
제공함으로써 직무탐색과 직무역량 강화 도모**

전략 1

일경험
기회 확대

- ①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
- ②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
- ③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

전략 2

일경험
단계별 맞춤
서비스 제공

- ① 일경험 찾기: 일경험 맞춤형 매칭 지원
- ② 활동 단계: 일경험 참여 청년 지원 및 보호
- ③ 참여 이후: 자율적 소통 및 확인서 발급 지원

전략 3

일경험 품질관리
체계 마련을 통한
질적 제고

- ①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·평가
- ② 민·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·확산

[전략1] 일경험 기회 확대

1

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

1 일경험 공급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

1 - ① [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도입] 단순 기업탐방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사업 도입

- (유형 다양화*를 통한 선택권 확대) 기존 기업탐방 외에 프로젝트, 인턴십 유형을 신설하고,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참여 확대 도모('23년 553억원**)

*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유형[청년 일자리 인식조사(고용부), '22.12월]: ①프로젝트(34.6%), ②기업탐방(30%), ③1개월 인턴십(21%), ④3~6개월 인턴십(14.4%)

**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: ('22년) 1만명(기업탐방) → ('23년) 1.97만명(기업탐방·프로젝트·인턴십)

유형	기존 기업탐방	신설 프로젝트	신설 인턴십
기간	5일 이내	1개월 내외	1~3개월
수행 방식	•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, CEO 및 현직자와의 대화 등	•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 • 기업 또는 운영기관 관계자가 수행 과정 코칭 • 최종 결과물을 기업이 심사·평가하여 피드백	•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•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
사전 교육	직업기초능력 교육(OT)	직업기초능력 + 직무교육 (1개월 내외)	
지원 내용	시설 이용 등 프로그램 운영비	코칭·심사 등 운영비 청년 참여수당·활동비	멘토수당 등 운영비 청년 참여수당
'23년 지원인원	1만명	2천명	7.7천명

- 특성화고·대학 저학년은 기업탐방부터 단계적으로 경험하고, 고학년 및 졸업 후 구직청년은 프로젝트나 인턴십에 참여하는 등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

☑ 민간 사례

- (H-experience 프로그램, 현대차)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(M.E.C.A)*에서의 인재 발굴,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현장체험, 인턴십 등 제공

* Mobility(이동성), Electrification(전동화), Connectivity(연결성), Autonomous(자율주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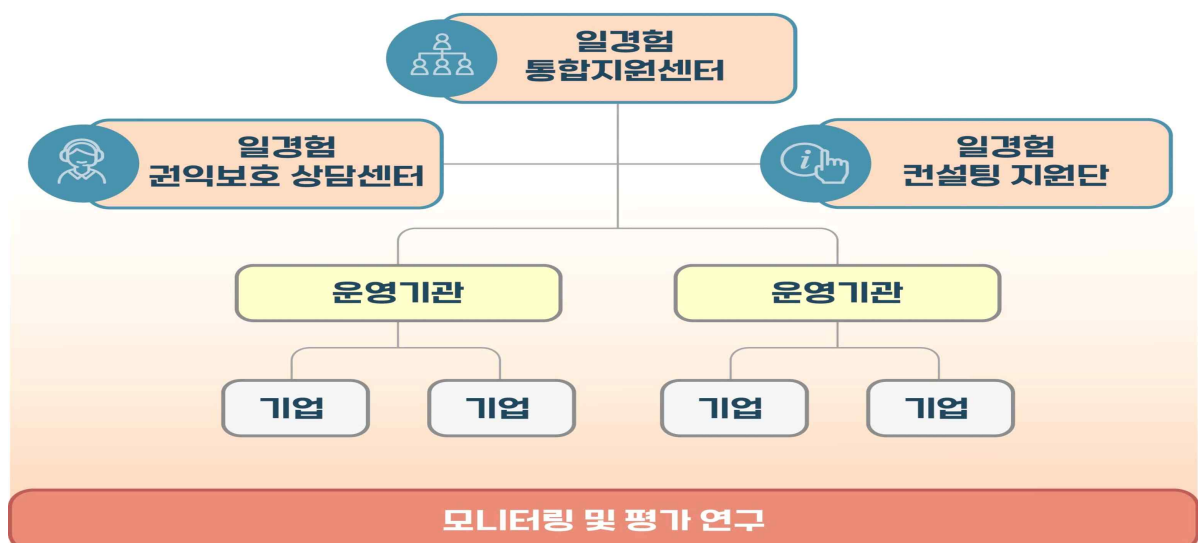
- '19년부터 운영, 年 2~300명 규모로 지속 확대 중(「청년도약 멤버십」 가입, '21.11월)

- (가칭일경험 통합 지원센터 설치) 운영기관 선정, 참여 기업DB 구축·관리, 프로그램 모니터링·평가 등 사업 운영 총괄 수행
 - (민·관 협의회) 업종별 협·단체, 기업 등으로 구성·운영하여 업종별 특색에 맞는 일경험 모델 발굴 등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 확산 지원
 - (컨설팅 지원단) 지역의 우수 중소·중견기업,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경험 참여 기업 및 모범사례 발굴·추적
 - (권익보호 상담센터) 참여 청년의 애로사항 상담 및 권익 보호
- (운영기관 선정) 기업을 발굴하여 구체적 과업 부여, 멘토 지정 등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하고, 참여 청년·기업 애로사항 지원

☑ 민간 사례

- (미니 인턴, 오픈놀) 기업이 실제 직면한 현안에 대한 직무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(교육형), 취업까지 연계(채용형)되는 인재 매칭 서비스
 - 참가자 OT, 중간 및 최종 제안서 피드백 등 참여 과정을 지원
 - 약 40만명 가입자 수, 3,000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
- (직무 부트캠프, 코멘토) 직무별 현직자 멘토가 리드하는 캠프를 개설하여 청년과 매칭
 - 직무 에센스 강의, 현업 시뮬레이션 과제 수행, 1:1 피드백 등을 제공, 구직과정에서 직무 경험으로 활용
 - 월 3,000명 이상 청년 참여, 300개 이상 직무캠프 운영

- (모니터링·피드백) 별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, 객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행



① - ② [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개편] 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미취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국취 일경험은 기존 체험형·인턴형을 **훈련연계형** 중심으로 운영하여 참여 청년의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

* ('22년) 체험형(1개월, 실습생), 인턴형(3개월, 근로자) → ('23년) 훈련연계형(1~3개월, 실습생)

- 기업 상황에 따라 직무수행 중심으로 운영하되 직무교육, 과제 수행 등 취업 관련 세부 프로그램도 구성(30% 이내)
-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자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**운영비 지원을 강화**('22년 1인·月10만원 → '23년 1인·최대 月50만원)

② ESG 차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

- ESG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청년도약 멤버십*」 기업과 협업하여 일경험 공급 확산 추진

*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멤버십으로 인증하여 민·관 네트워크 구축·강화

- 자발적 일경험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ESG 지표 반영*, 프로그램 운영비**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

* 'K-ESG 가이드라인(관계부처 합동)' 등에 청년 일경험 항목 반영 검토

** 「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」을 통해 ESG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경험 등 프로그램 운영비(프로그램당 최대 50억원, 기업당 최대 10억원) 등 지원('23년, 24개 프로그램 지원)

☑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참여 사례

- (Remote Internship, CJ올리브네트웍스) 메타버스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무 기반의 업무 체험*과 디지털전환(DT)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('22년 510명 지원 목표)

* (예)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디어 서비스 분석 및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등

- (Hotel Maker Project, 롯데호텔) 호텔 서비스 직무교육 실시,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호텔 투숙 기회 제공, 현직자 멘토링, 호텔 상품 개발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 진행('22년 150명 지원 목표)

① 지역 맞춤형 일경험 확산

- 지자체 중심의 「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*」 중 지역포용형 유형을 통해 지역 맞춤 일경험 제공(행안부·지자체, '23년 약 3,000명)
 - * (유형) ①지역포용형(직무경력 지원) ②지역혁신형(취업지원) ③상생기반대응형(창업지원)
 - ↳ 지역 특화 직무경력 쌓기,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
- 「지역기업·청년희망이음사업」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탐방, 지역기업 주도의 맞춤형 실무경험 등 일경험 제공(고용부·산업부 협조)
- 「국가산업단지」 및 「지역혁신클러스터」 내 기업, 협·단체*와 일자리 지원기관**이 협업하여 지역 단지에 적합한 일경험 제공(고용부·산업부 협조)
 - * (예시) 산업단지별 경영자협의회, 협동조합, 지역산업 협회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
 - ** (예시)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, 산학협력단, 산학융합원 등

☑ 지자체 사례

- (청년인턴 직무캠프, 서울시) 서울 소재 청년 구직자의 '일경험'을 위해 직무교육 훈련과 유망분야 우수기업 인턴ships을 지원('22년 350명 지원 목표)
 - * (주요 내용) 직무훈련(3개월, 교육비 무료) + 기업 인턴ships(3개월, 서울시 생활임금 약 230만원 지급), 우수 글로벌기업 참여(3M, 안센, VISA, AIA생명 등)
- (청년 일경험 드림, 광주시) 사업장 형태, 직무 내용 등에 따라 유형 분류*, 일경험(5개월)과 함께 직무 교육, 상시 상담, 네트워크 활동 등 지원('22년 800명 지원 목표)
 - * (유형) 공공기관형, 기업형, 사회복지형, 사회적가치형, 청년창업기업형 등 (급여) 광주시 생활임금 지급

② 부처별 산업·분야 특화 일경험 제공 확대

-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농식품, 외교,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 분야에 대한 일경험을 단계적 확대 추진

분야	내용	규모('23)	부처
농식품·외식	식품위생 및 안전 교육 기반 국내·외 인턴십 및 창업 프로젝트 지원	600명	농식품부
외교	청년의 글로벌 진출 및 국제교류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기구, 기업 등 인턴십 제공	134명	외교부
문화유산	문화재 보존관리·활용·기획 관련 공공·민간기관 인턴십 제공	290명	문화재청
ICT·SW	직무훈련 연계 프로젝트 수행, 인턴십 제공(국내·외)	920명	과기부
도시·건축	건축설계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실무연수 및 해외 건축활동(공모전, 전시 등) 지원, 도시재생 분야 직무교육 연계 인턴십 제공	800명	국토부
방위산업	직무교육 연계 프로젝트 수행 및 기업 실무연수 제공	80명	방사청
산림	산림분야 청년창업 캠프 운영 및 컨설팅, 국제산림협력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직무체험 지원	66명	산림청

3

공공부문 일경험 확산

- **[중앙행정기관 인턴 신설]** 공공분야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인턴 신설 및 확대* 추진(국조실·인사처)
 - * ('23년) 2천명 → ('24년) 2.5천명 → ('25년) 3천명 → ('26년) 4천명
- **(운영 내실화)**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수행을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역량 강화 및 정책과정 참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*
 - * ▲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 반영 ▲지역균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▲인턴운영 적극 협조 부서는 평가시 가점 등
- **[공공기관 일경험 확대]** 공공기관에서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일경험 제공 확대(고용부·기재부·행안부)
 - **(재정지원)** 고용부 '청년 일경험 지원사업' 및 '국채 일경험 프로그램'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일경험 기회 확대 촉진
 - **(신규발굴 및 내실화)** 일경험 통합 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미참여·저평가 기관 등에 컨설팅을 제공, 프로그램 발굴 및 내실화 도모

[전략2] 일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

1

일경험 찾기: 일경험 맞춤형 매칭 지원

- **[온라인: 통합 플랫폼 구축]** 일경험 정보 통합 DB 구축 및 기존 플랫폼과 연계 등 통합 플랫폼(모바일앱 포함) 구축 추진('23년 ISP 수립)
 - 청년의 일경험 요구를 분석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온라인 상담 채널 및 진단 도구(프로파일링 도구)* 개발·제공('23下),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·검색기능 고도화 등 추진('24년)
 - * 청년에게 '일경험이 필요한지, 준비가 되었는지, 어떤 수준·유형의 프로그램이 적합한지' 등을 알려주고 적합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도구
 - 플랫폼 구축 전에는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기존 '청년 직무체험 홈페이지' 개편 및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정보 통합 제공
 - 일경험 프로그램 합동 공고* 등을 통해 청년의 선택권 확대 도모
 - *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 동시 진행(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분산)
- **[오프라인: 고용서비스 연계]** 대학일자리*센터를 통해 재학생 대상 일경험 정보 제공, 특히 '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' 참여 청년 적극 매칭
 -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,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상 청년의 기업탐방 등 일경험 정보 제공 및 참여 지원

2

활동 단계: 일경험 참여 청년 지원 및 보호

- **[담당관제 시범 도입]** '23년 도입되는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 참여기업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청년 및 기업의 일경험 과정상 애로사항 해소 지원
 -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일경험, ESG차원의 자율적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검토
- **[일경험 권익보호 상담센터 지정·운영]** 모든 유형의 일경험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참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대우·성희롱 등 문제를 익명으로 상담, 필요시 신고절차 등 지원
- **[표준 매뉴얼 마련·보급]** 참여 청년이 부당대우 등을 받지 않고, 기업도 분쟁 발생 우려 없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 및 협약서 등을 마련·보급
- **[법제화 검토]** 참여 청년의 안전·권익 등을 보호하고,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마련 검토 추진
 - * (주요 내용) 정부의 책무, 참여 청년의 지위,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,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, 청년-기업 간 계약에 관한 사항, 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
 - ** 일경험 해외 법제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중('22.9~'23.3월)

3

참여 이후: 자율적 소통 및 확인서 발급 지원

- **[청년 네트워크 활성화]** 일경험 동기부여 및 애로 경감 등을 위해 플랫폼 內 커뮤니티 등을 통한 참여 청년 중심의 교류 활성화 촉진
 - '일경험 통합 지원센터'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권역별·직무별 만남의 날 등 소통 기회 제공
- **[일경험 이수 확인서 발급]** 청년의 일경험 참여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관리, 구직 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등 지원('23년~)
 - * 참여 기업 외에도 통합 지원센터, 협·단체 공동 명의로 발급하여 공신력 제고
 - 정부지원 사업부터 발급 추진하되 민간의 자율적 일경험 사업이라도 통합 플랫폼에 등록·모집된 경우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검토

[전략3]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질적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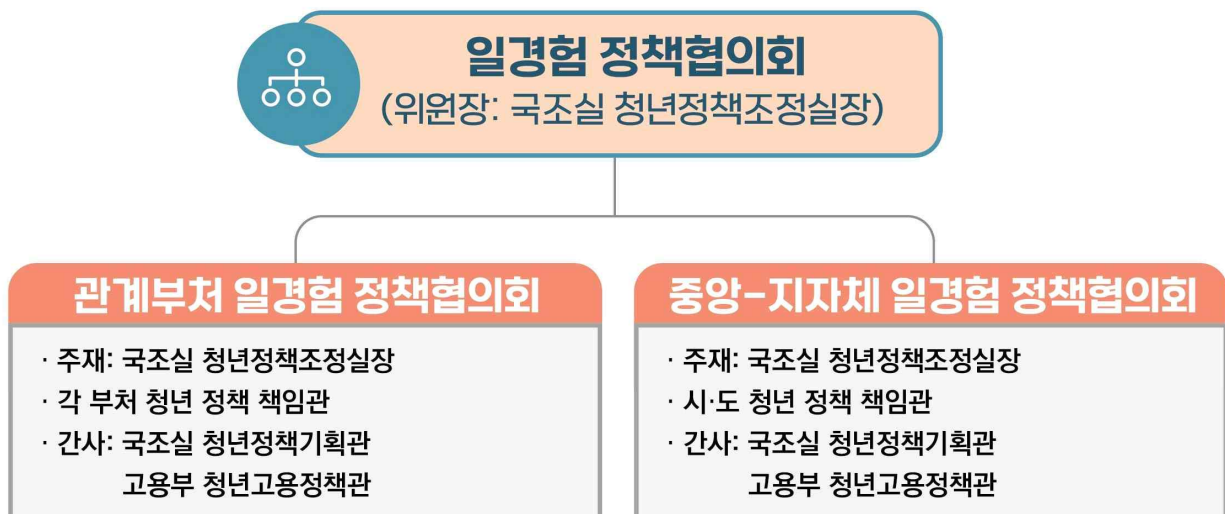
1

정책협의회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·평가

- **[정책협의회]** 공공부문 일경험 활성화, 부처별 일경험 사업의 조정 및 확대를 위해 범정부 '일경험 정책협의회' 구성·운영*(분기 1회)

* 국조실 내 '청년정책 책임관협의회'를 활용하여 '일경험 정책협의회' 운영

- 공공부문 일경험 프로그램 및 정부 내 일경험 지원제도의 실태 조사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고,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·보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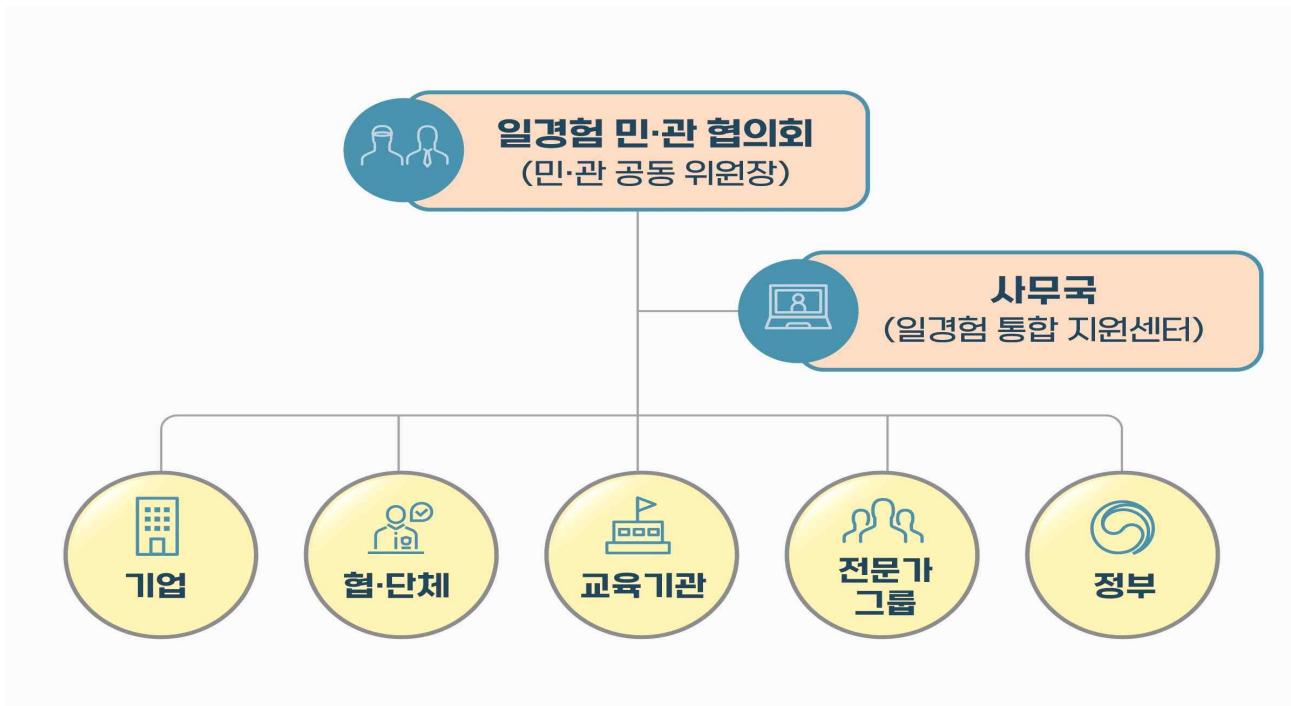


- **[모니터링]** 정부 지원사업별로 명확한 과업 부여, 멘토링 등 프로그램 세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품질 관리
 - '청년 일경험 지원사업(고용부)'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('23) 통해 각 부처가 도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입방안 논의·시행
- **[평가]**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('23년)하고, 청년정책 평가(국조실)와 연계하여 사업별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사업 선정 추진

2

민·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·확산

- [민·관 협력체계 구성] 민간 주도 청년 일경험 생태계 조성을 위해 “일경험 민·관 협의체” 구성·운영(분기 1회)
 - 청년의 요구 및 기업 실정에 맞는 일경험 제도 개선 방안, 프로그램 간 연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모범사례 발굴·확산 등 추진



- [우수 프로그램 확산]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‘일경험 컨퍼런스’ 개최
 - 선정된 우수사례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·운영 가이드 마련·배포, 컨설팅 제공 시 활용
 - 공식적인 평가에 의한 우수 프로그램 선정뿐만 아니라 통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청년의 직접 평가방식만으로도 우수 프로그램 선정·홍보
- * 우수 프로그램은 통합플랫폼 내 표식(예: 별표, 배지) 부여, 홍보 등을 통해 공유·확산

Ⅲ. 과제별 추진 일정

과 제 명	일 정	소 관
[전략1] 일경험 기회 확대		
1-1.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		
① 일경험 공급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		
-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	2만명	고용부
-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	1.7만명	고용부
② ESG차원 등 기업의 자발적 공급 확산 유도		
- 「청년도약멤버십」 기업 협업 및 활성화	'23.上~	고용부
-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	5천명	고용부
1-2. 지역·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		
① 지역 맞춤형 일경험 확산		
-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	3천명	행안부, 지자체
- 지역기업-청년희망 이음사업	9천명	산업부
- 「국가산업단지」·「지역혁신클러스터」 맞춤 일경험	'23.上~	고용부, 산업부
② 부처별 산업·분야 특화 일경험 제공 확대 (ICT·SW, 도시·건축, 농식품·외식, 외교, 문화유산, 방위산업, 산림 등)	3천명	과기부, 국토부,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
1-3.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		
① 중앙행정기관 인턴 신설	2천명	국조실, 인사처
② 공공기관 일경험 확대	2.1만명	고용부, 기재부, 행안부 등
❖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공급	8만명+α	

과 제 명	일 정	소 관
[전략2] 일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		
2-1. 일경험 찾기: 일경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		
① 일경험 통합 플랫폼(모바일앱 포함) 구축	'23.上~	고용부
② 일경험 진단(프로파일링) 도구 개발·보급	'23.下~	고용부
2-2. 활동 단계: 일경험 참여 청년 지원 및 보호		
① 담당관제 도입·운영	'23.上~	고용부
②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	'23.上~	고용부
③ 표준 매뉴얼 마련·보급	'23.上~	고용부
④ 일경험 법제화 검토	'23.上~	고용부
2-3. 참여 이후: 자율적 소통 및 확인서 발급 지원		
① 참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	'23.下~	고용부
② 일경험 이수 확인서 발급 서비스 제공	'23.下~	고용부
[전략3]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질적 제고		
3-1. 정책협의회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·평가		
① 일경험 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	'23.上~	국조실 고용부 등 관계부처지자체
② 일경험 지원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	'23	고용부
③ 일경험 정부 지원제도 평가	'23.下~	국조실 등 관계부처
3-2. 민·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·확산		
①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	'23.上~	고용부
②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	'23.下~	고용부
'23년도 청년 일경험 정부 지원 예산		2,372억원

■ 기업 일경험 제공 사례

[H-experience 프로그램 기업탐방 인턴십] (현대자동차)

-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(M.E.C.A)*에서의 인재 발굴,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턴십 제공
 - * Mobility(이동성), Electrification(전동화), Connectivity(연결성), Autonomous(자율주행)
 - * (유형) 인재발굴형, 현장체험형, 채용전환형 등
- '19년부터 운영, 年 2~300명 규모로 지속 확대 중
 - * 고용부 「청년도약멤버십」 가입('21.11월)

[AI fellowship 프로젝트] (SKT)

- 대학(원)생이 현업 선배들의 밀착 멘토링과 연구비 지원을 받아 5개월간 AI, Media, Security 등 SKT 기술 분야의 실무 과제를 기획부터 개발까지 직접 완수하는 프로그램
- '19년부터 운영, '22년(4기) 12개 과제 (33명)

[카카오트랙 인턴십] (카카오)

- 제주대 컴퓨터공학전공 재학생 대상 방학기간 현장실습, 인턴십, 웹 개발 강의 등 제공하는 프로그램
- '07년 시작 이후 111명 과정 수료, 취업률 85.6%
 - * 고용부 「청년도약멤버십」 가입('22.2월)

[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인턴십] (하나금융그룹)

- 미청년 디자이너, 경력보유여성, 장애를 가진 구직자 등 대상으로 사회혁신기업*에서 일경험 제공
 - *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, 사회적기업, 소셜벤처 등
- '22년 사회혁신기업 200개소를 통해 인턴십 제공
 - 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(사회혁신기업 발굴, 수료증 발급 등) 통해 추진

[씨티-경희 NGO 인턴십 인턴십] (씨티은행, 경희대)

- 청년 대상 방학기간 8주 동안 시민사회와 NGO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
- 15년간 국내외 약 150여개교 약 1,300명 청년 및 1,000여개 단체 참여

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례

[직무 부트캠프] (코멘토)

- 직무별 현직자 멘토가 리드하는 캠프를 통해 직무 에센스 강의, 현업 시뮬레이션 과제 수행, 1:1 피드백 등을 제공, 구직과정에서 직무 경험으로 활용
- 월 3,000명 이상 청년 참여, 300개 이상 직무캠프 운영

[미니 인턴] (오픈놀)

- 기업이 실제 직면한 현안에 대한 직무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(교육형), 취업까지 연계(채용형)되는 인재 매칭 서비스
- 약 40만명 가입자 수, 3,000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

■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통한 재정지원 사례

[Remote
Internship 프로젝트]
(C올리브네트웍스,
퍼브, 한국경제신문)

- 메타버스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무 기반의 업무 체험*과 DT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- * (예)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디어 서비스 분석 및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등
- '22년 실시인원 549명(운영 중, 510명 지원 목표)

[Hotel Maker
Project 프로젝트]
(롯데호텔)

- 호텔 서비스 직무교육, 배운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호텔 투숙 경험 제공, 현직자 멘토링, 호텔 상품 개발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 진행
- '22년 실시인원 150명, 수료인원 149명(99.3%)

[오픈콜라보
클래스 프로젝트]
(SKT)

- 구직단념 청년 대상 심리지원으로 구직의욕 고취, 사회 이슈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역량 향상 지원
- * (예) 상담을 통한 청년 우울 문제 해결,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 등
- '22년 실시인원 184명(운영 중, 200명 지원 목표)

[엔터비즈니스
음악레이블 마스터
클래스 프로젝트, 기업탐방]
(알비더블유)

- 기획, 제작, 유통, K콘텐츠 등 직무이론 교육부터 가상의 레이블을 설립해보는 팀 프로젝트 진행, 연계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
- '22년 실시인원 60명

[청년목수학교 프로젝트]
(바오밥목공전문학원,
안성시청,
푸르네정원문화센터,
푸드위드)

- 5.5평의 실제 집을 제작해보며 건축시공, 가구제작, 정원시공 등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
- '22년 실시인원 32명(운영 중)

[뮤지컬 기반
K-Contents
LAB 프로젝트, 기업탐방]
(콘텐츠플래닝)

- 뮤지컬 기획, 홍보 마케팅, 유통 관련 현직자의 강의 제공, 그룹별 기획서 작성 프로젝트 실습, 매칭 기업탐방 등
- '22년 실시인원 142명(운영 중)

[금형인재
직무역량강화
Bridge 기업탐방, 인턴십]
(비즈엔몰드 등 11개)

- 사출금형, 프레스금형 설계 및 제작, 스마트 가공 등 기초 직무교육 후 연계 기업에서의 현장실습(160시간), 팀프로젝트 수행, 채용연계 지원 등
- '22년 실시인원 72명, 수료인원 60명(83.3%)

참고 2

일경험 지원 관련 해외 주요 사례

미국 	❶ (담당) Office of Apprenticeship : 미국 고용노동부, 고용·훈련청 산하 견습국 ❷ (주요 기능) - (프로그램 총괄 및 예산 지원)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등록 견습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 지원*, 신규 프로그램 개발, 질 관리 등 * 산업별로 중개단체(운영기관의 견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) 선정 및 비용지원 - (등록 인정 및 평가) 기업·단체가 제출한 견습 프로그램 계획서* 평가 및 인정 * 프로그램 운영기준(시간기반접근, 역량기반접근 등), 직무교육 실시,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- (수료 인정) 견습 종료한 참여자에게 산업 인증 수료증 발급
네덜란드 	❶ (담당) S-BB : 네덜란드 교육부 산하 국립기관 ❷ (주요 기능) 중등교육기관과 훈련기업 간 연계 활성화 - (일경험 질 관리) 일경험 제공 기관 발굴 및 인증*, 코칭 등 수행 * (인증 기준) ①학습하기에 안전한 환경인가? ②적합한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? ③일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합한 트레이너가 있는가? ④중등직업교육기관(학교) 및 S-BB와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가? - (기업 지원) 일경험 제공 기업에 1인당 年 2,000유로(약 265만원)의 보조금 지원 - (자격 관리) 직무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자격을 신설·관리 - (기타) 노동시장, 일경험 제도 등에 관한 연구, 정책 개발, 직업 정보 제공 등
호주 	❶ (제도) Youth Jobs PaTH(Prepare-Trial-Hire) : 청년에게는 훈련 기회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, 기업에는 청년 고용 보너스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 유도 ❷ (대상) 잡액티브(공공고용서비스) 프로그램에 등록한 17~24세 청년 구직자 ❸ (지원내용) - (1단계: Prepare) 6주간 기술훈련 제공(기초훈련 3주, 심화과정 3주) - (2단계: Trial) 인턴십 제공*(1주 15~25시간, 4주~12주 근무) * (대상) 6개월 간 구직서비스를 받았거나,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* (수준) 청년에게는 인턴십 급여 + 2주간 소득지원급여(200호주달러, 약 18만원) 지원, 기업에는 선불급여 지원(1,000호주달러, 약 90만원) - (3단계: Hire) 6개월 이상 고용 시 임금 보조금(6,500호주달러, 약 590만원) 지급

